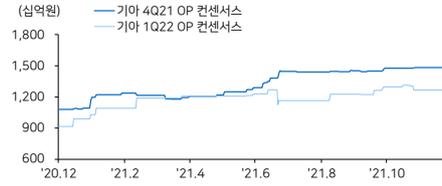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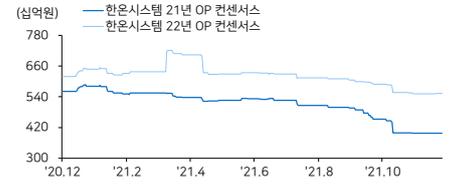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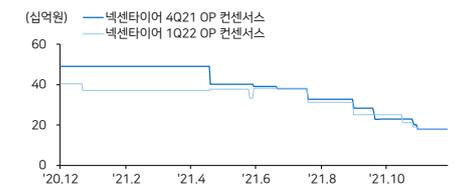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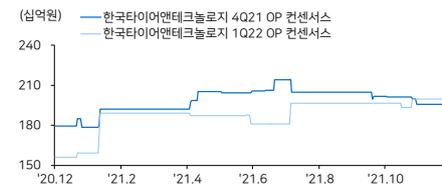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·기아 올해 판매목표 747만대...친환경차 판매 속도 (뉴시스)

현대자동차·기아 올해 판매목표로 747만대를 제시함. 지난해 목표(708만2,000대)에 비해 5.5%, 지난해 실제 판매실적(666만8037대)에 비해 12.1% 각각 증가한 수치. 반도체 수급의 점진적 개선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봄. <https://bit.ly/3qNXHt2>

메타버스 등장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... "가능성을 일상으로 실현" (파이낸셜뉴스)

현대차는 3일 메타버스에서 사무실을 진행함. 친환경 토탈 티어 브랜드 기반 공고화, 전 영역에서 전동화 전환 속도, AI 연구소 설립 등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차 시장에서의 1위 중천시 620마일(1,000km)의 주행거리가 특징. <https://bit.ly/3FW26ty>

Electric cars hit 65% of Norway sales as Tesla grabs overall pole (Reuters)

노르웨이의 2021년 자동차 판매는 yoy 25% 증가한 176,276대를 기록했으며, 이중 65%가 BEV로 나타남. Tesla 차량의 점유율은 노르웨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11.6% 1위를 차지함. 노르웨이 EV 판매는 '22년 80%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. <https://reut.rs/3JDNqkT>

Mercedes-Benz unveils VISION EQXX prototype with over 620 mile range and a solar roof (electrek)

Mercedes-Benz가 주행거리와 에너지 효율성의 미래 가능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출시함. 자체제작한 고효율 전기 구동계, 솔라루프, 1회 충전시 620마일(1,000km)의 주행거리가 특징. <https://bit.ly/3pPgUeY>

[CES2022] '韓, 최대기업 참가... 키워드는 헬스케어-미래車-라이프스타일-AI (파이낸셜뉴스)

CES에서 한국기업들이 44%가 헬스케어/모빌리티/라이프스타일/인공지능에 집중됨.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사물어 이동성을 부여하는 PnD모듈과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'모베드'를 공개할 예정. <https://bit.ly/3zJKRfW>

메리 바라 GM 회장, 2년 연속 CES 기조연설... 기대감 고조 (데일리안)

다가오는 5일, '미국 완성차 업체 GM CEO '메리 바라'가 CES2022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. GM의 차량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고 탄소 배출 제로 비전을 위해 설계된 GM의 쉐보레 실버라도 EV를 공개하며 차세대 전기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. <https://bit.ly/3zJZuTC>

Chips' sales grip may only slightly ease in '22 (Automotive News)

글로벌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이 '22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. 생산일정이 개선되더라도 올해 수급은 타이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, 견조한 수요는 계속 유지되어 향후 정상화 시 판매가 지속 성장할 수 있다는 의견. <https://bit.ly/3zjsDyW>

Toyota to launch its own automotive software platform by 2025 (Reuters)

토요타는 '25년까지 자율주행과 같은 고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운영체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월요일 밝혔. 또한, 향후 Subaru 등 계열사나 타 완성차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 <https://reut.rs/3mShiAw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